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Sometimes the heart sees what is invisible to the eye. (H. Jackson Brown, Jr.)

마음은 때때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잭슨브라운)

지난 주말(2014년 7월 5일~6일)에 몇 년 전 포럼에서 만나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분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예로부터 정선은 우리에게 정선아리랑과 사북탄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지금은 강원랜드 카지노로 유명하지요.

아침 일찍 잠실에 모여 버스를 타고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1차 일정을 마친 후 개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몇몇 분들과 함께 도보여행(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곤돌라로 이동하고 내려오는 코스는 걷기로 하였습니다. 마운틴 콘도로 이동하여 관광곤돌라를 타고 마운틴 탑 전망대에 올라 자연을 즐겼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공기는 무척 맑았습니다.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形形色색의 야생화는 그 아름다운 자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을 자아내게 하더군요. 전망대가 있는 산 정상에는 하트 조형물이 있었고, 우체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체통 옆에는 엽서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발송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통의 엽서를 썼습니다. 한 통은 나에게, 한 통은 아내에게. (2015년 7월 초 저는 2014년에 썼던 이 엽서를 받았습니다.)

정선방문을 통해, 그동안 오랜 기간 만나왔던 분들이었지만 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다고 한다면, 워크숍을 통해 마음으로 서로를 좀 더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선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든 강원랜드 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약 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요즘 정선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카지노를 더 즐긴다(?)는 것이겠지요. 카지노를 찾는 분들이 너무 카지노에만 몰입하지 않고, 자연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기대합니다.